

## 『제이콥의 방』 : 상류사회 청년지식인의 초상

김 채 남\*

### I

1922년에 발표된 울프의 첫 번째 실험소설인 『제이콥의 방』 (*Jacob's Room*)<sup>1)</sup>은 같은 해에 발표된 『율리시즈』, 『황무지』와 더불어 모더니즘 텍스트의 전형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플롯, 등장인물의 부재, 인상주의 수법 등 대표적 모더니즘 미학이 텍스트의 특성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울프의 작품 중 가장 당혹스러운 작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인공으로 제시되어 있는 제이콥의 비실체성 때문이다. 『제이콥의 방』에 대한 비평은 항상 “제이콥은 도대체 누구인가?”하는 정체성을 해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고, 어떤 의미에서 그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이콥의 방』에 대한 논의도 평자에 따라 양분되어 있다. 가령, 맨리 존슨(Manly Johnson)은 『제이콥의 방』은 위대한 소설은 아니지만, 혁신적이고 공들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내면세계와 외부세계가 상호 삼투되는 울프 최초의 성공작으로 보았고(Johnson 42), 무디(A. D. Moody)도 저자 특유의 서술전략으로 사회와 영혼에 관한 통합된 비전을 최초로 포착한 작품이란 점에서 울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Moody 15). 그런가 하면, 조은 베넷(Joan Bennett)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총체성의 결여를 이 작품의 약점으로 지적하고, 그 이유가 너무도 평범한 흐릿한 인상의 주인공 때문이라고 비

---

\* 인덕대학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1) Virginia Woolf, *Jacob's Room* (New York: A Harvest Book, 1960)  
앞으로의 모든 텍스트 인용은 이 판을 기준으로 하며, JR이란 약자와 함께 쪽수만 괄호안에 기입하겠음.

관한다(Bennett 95, 96). 피카소가 그린 분리된 인간모습과 같은 인물의 애매성은, 작중인물의 성격해석을 저자가 아닌 독자의 상상력과 자율성에 맡기는 모더니즘 미학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그것은 『제이콥의 방』이 빅토리아조 리얼리즘 전반에 대한 비판, 특히 독단적이고 일관된 주체를 상정하는 인물론에 대한 패러디로서, 다양한 의미의 합성과정을 통해 진리의 상대성을 추출하고자 한 저자의 의도에 근거한다. 작중인물의 부재는 이처럼 모더니즘의 실험성의 한 측면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개인을 축소시키고 보다 광범위한 보편적 삶, 즉 사회를 탐색하고자 한 저자의 정치적 의도에서 온다. 무디는 『제이콥의 방』을 형식과 존재론에 대한 실험보다는 에드워드조의 문화와 1차대전에 관한 소설(Moody 14)이라고 서슴없이 규정하는데, 이것은 이 작품이 사회비평적 측면을 강조하여 쓰여진 소설임을 보여준다. 저자의 사회비판적 의도는 여러 면에서 표출된다. 먼저, 1차대전시에 전사한 청년의 삶이 개체가 아닌 하나의 전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이 그것이다.

『제이콥의 방』의 주제를 “정체성 탐구의 불가능”, 혹은 “개성보다 몰개성의 지향”이라고 한 허마이오니 리(Hermione Lee)의 지적에서 보듯, 울프는 사회 모순의 한 척도인 전형화된 개인을 통하여, 그 사회전반의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제이콥의 삶의 궤적은 당시 지식인이 누리던 삶의 표준적 모습으로서, 그의 삶은 그가 속한 지배계급의 상층부로 통하는 전통적 단계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그는 당대 사회의 한 반영인 서구 상류층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를 분석하는 일은 작품이해와 깊이 관련된다. 제이콥을 통해서 독자는, 당대 영국사회의 교육,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사회체제의 실상을 비판적 거리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동시에 당대 서구사회의 부정적 측면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작품은 제이콥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제이콥의 방, 즉 지리적·사회적·문화적 공간인 영국, 영사회, 나아가 서구문명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되기도 한다(Beattie 526). 제이콥의 방은 그가 속한 세계인 모든 사람, 모든 장소의 제유로서, 그 세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19세기말과 20세기초의 영국 빅토리아조 제국주의시대를 지칭한다

(Paul 103). 둘째, 전쟁이 『제이콥의 방』의 주요 모티프가 되어 있는 점 또한 저자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제이콥이 당대 지배체제의 수혜자이면서, 한편으로 그 지배체제의 산물인 전쟁에 의해 파괴되는 희생자라는 역설적 서술전개는 작품의 풍자적 효과를 고조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제이콥의 방』은 반전소설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저자가 전쟁 자체에 대한 분노보다는, 전쟁을 유발한 지배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울프가 제이콥을 영웅적 인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부수적인 인물로 제시한 것은 당대풍토에 대한 풍자이면서, 역사와 사회 변혁의 주체라기보다, 국가이익 증대를 위한 도구로 이용당한 젊은이들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이 작품의 내러티브 또한 작품의 정치적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제이콥의 방』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내러티브가 작품의 축을 이룬다. 제이콥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가 그 하나이며, 제이콥에 대한 글쓰기에 관한(Lee 77) 메타픽션적 내러티브가 그 하나이다. 기존체제에 대한 제이콥의 저항이 텍스트를 구성한다면, 과거의 소설 컨벤션에 대한 화자의 저항이 텍스트의 형식을 구성하여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총체적 비판기능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남성중심의 빅토리아조 리얼리즘의 단성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새로운 실재에 대한 비전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의의는 단성적 이데올로기에 정면 도전한 테크닉상의 실험에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절망적인 시대분위기 속에서 서구의 에토스를 통괄해낸, 저자의 집요한 역사의식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제이콥의 방』이 당시의 사회·정치적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텍스트라는 점에 주목하여, 울프의 사회적 비전의 특징을 살피는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 먼저 제이콥의 단계적 변화에 상응하는 모습을 케임브리지와 런던, 그리스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의 정신적 성장의 한계가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탄력성 없는 당대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한 인간을 어떻게 주형하는가를 분석하여 지배체제 전

반에 대한 저자의 사회비판의 성격을 탐색할 것이다.

## II

『제이콥의 방』의 기본구조는 간단하다. 제이콥의 유년기에서 26세에 죽음을 맞는 청년기까지의 삶이 연대순으로 소개된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작품내용은 크게 보아 제이콥이 과부어머니 베티 플랜더즈(Betty Flanders)와 두 형제 아처(Archer), 존(John)과 보낸 콘월에서의 유년시절, 럭비, 케임브리지에서의 교육, 런던에서의 직장생활,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등지로의 유럽순회여행, 그리고 1차대전 발발과 전사로 나뉜다. 기존 플롯과는 달리, 작품은 극적 긴장감을 더하는 어떤 사건도 없이 진행되며, 주인공의 죽음조차 작품 끝에서 암시적으로 처리됨으로써 복합적 의미를 산출하는 비결정적 플롯의 형태를 취한다. 텍스트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인상에 기록된 작은 에피소드들에 의해 지탱된다. 그 에피소드들은 그러나 강한 응집력을 보여 삶의 우연성이라는 기본 주제를 전달한다. 인간 삶의 무의미와 실존적 비극성이라는 실존적 주제와, 폭력이 인간의 잠재적 현실이라는 정치적 주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 독자는 작품전반에 흩어져 있는 인상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절망의 함성’이라는 제시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이콥의 방』이 폭력에 귀 멀고 눈 먼 문화와 그 역사적 시대에 대한 ‘실제 이야기’일뿐 아니라(Harper 91&106), 인간 존재의 근원적 비극성까지 다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테마는 제국주의적 권력지향의 사회구조 속에서 주체적 자아의 내적 비전을 모색하는 제이콥의 여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유년기와 청년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 제이콥의 모습은 사회가 강요하는 정체성에 저항하는, 말하자면, ‘이상주의자적 반항아’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성장기의 제이콥의 반항적 면모를 몇가지 짚어보자. 제1장은 영국 서부 최남단 해안 마을인 콘월을 배경으로 하여, 해변가로 소풍 나온 제이콥 가족의 단편적 모습을 통해 그의 유년기의 성격을 보여준다. 어머니 플랜더즈 부

인에 의하면, 둘째이들 제이콥은 형제들과 동떨어져 혼자 해변가를 탐색하기를 즐기는 “놀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JR 7)이다. “다루기 힘들고”(JR 11), “성가신 아이”(JR 7)이며, 학동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여전히 나비를 쫓는”(JR 29) 제이콥은, 베틀의 세 아들 중 “유일하게 말을 듣지 않는 자식”(JR 23)이다. 제이콥의 이러한 반항적 면모는 그가 해변가에서 주은 젓빛게의 버둥거림과 커다랗고 누런 이가 있는 양의 두개골의 은유적 의미로 더욱 부각된다. 빛물이 반쯤 찬 양동이 속에서 힘없는 다리로 가파른 벽을 오르려 발버둥치는 게의 이미지는, 아버지의 법이 지배하는 상징계인 기성사회 속에서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려는 제이콥의 분투와 좌절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게의 무력한 모습이 제이콥의 미래상을 보여준다면, 그가 주워다가 침대 밑치에 던져놓은 양의 두개골은 죽음과 결부된 이미지라는 점에서, 제이콥의 운명과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 텍스트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반복되는 두개골 이미지는, 불변의 좌표인 신이 부재하는 시대에 파편과 기호로 남은 제이콥의 본질을 표상할 뿐 아니라, 다윈주의라는 정신적 외상을 갖고 있는 당대사회의 음울한 불안을 환기시킨다. 이처럼 유년기의 텍스트는 ‘죽음’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 이미지군을 병치시켜 현존하는 부재로서의 제이콥의 존재를 형상화한다. 가령, 1장에서 형아처가 제이콥을 찾아 헤매며 부르는 “제이콥! 제이콥!”(JR 8)의 반항 없는 외침은, 그 후에 플랜더즈부인, 클라라 듀란트(Clara Durrant), 리처드 보너미(Richard Bonamy)도 반복하는 외침이며, 이 외침은 화자의 논평에 의하면, 웬지 슬픔이 배어 있고, “육체와 온갖 열정을 벗어나 외로이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바위에 부딪치며 세상을 나아가는 그런 소리”(JR 8&9)이다. 이것은 역시 유년기의 중심이미지인 해골나방, 쓰러진 나무, 깊은 숲 속에서 갑자기 들리는 총성의 은유적 의미와 결합하여 작품 전반에 죽음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죽도록 운명지워져 있는 제이콥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원초적 자연 그대로인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콘월은 자연과 상응관계에 있는 유년기의 자발적 충동을 대변하는 장소이면서 제이콥의 내적 자유를 구속하는 권위와 전통의 위압적인 힘과 대조를 이룬다. 제이콥의 유년기가 어머니의 보호에서 벗어나려는 반항으로 특징 지워진다면 케임브리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의 청년기는, 인위적 질곡 속에서 그의 개체성이 점차 희미해져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3장의 케임브리지 시기는 자연/인위의 대립을 전제하면서 전개된다.

스물이란 나이로 대변되는 자연과 검은 외형으로 대변되는 연장자들의 세계

인 인위의 대립은, 자아의 연속성과 단절의 주제를 시사하면서 텍스트에 끊임 없이 반복되는 테마이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보편적 성향이라 할 수 있는 신념, 낙관주의, 이상주의와 물질적 사고가 팽배한 연장자들의 세계의 대립이기도 하다. 제이콥이 추구하는 삶은 울프가 「현대소설」에서 말한 ‘일렬로 늘어선 기그램프가 아니라 ‘의식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반짝이는 후광 또는 반투명의 외피’이다(JR 189-90). 이러한 자아의 존재론적 추구는 그가 케임브리지 학감인 물리학교수 조지 플라머(George Plumer)에 대한 반응에 예시되어 있다. 당대 유행하던 “쇼우(Shaw)며 웰즈(Wells)와 심각한 6페니짜리 잡지들”(JR 35)을 애호하는 플라머 교수의 세계는, 그의 오찬에 초대된 신입생 제이콥의 눈에는 “젊음과 자연스런 성향에 대치되는”(JR 35) 세계이다. 학문적 업적보다 사회적 성공을 더 중시하는 플라머 교수의 세속적 성향은, 그의 냉랭한 회색의 “멍한 눈빛”(JR 35)에서도 암시된다. 또 화자는 플라머 교수부인의 사다리에 대한 단상을 통해, 성공을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범주에서만 파악하려는 당대 영국의 정신풍토의 한 일면을 풍자한다.: “조지 플라머를 사다리 꼭대기로 앞세우는데 재미처럼 부지런하게 인색하고 야심만만하게 자라는 것 외에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사다리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확실히 나머지 가로장들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지.”(JR 34) 제이콥이 “젊은이들은 제거하고 뒤덮으며 무엇을 좇고 있는 건가?”(JR 35)하는 냉소와 함께 플라머 교수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도 이러한 지식층의 허상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제이콥이 플라머 교수의 일요일 점심 초대 때마다 느끼는 “이런 충격-경악-불쾌”(JR 36)와는 달리, 교우 티미듀란트(Timmy Durrant)와의 강가로의 여행은 “모든 면에서 안정감 있는 확신”(JR 36)을 느끼게 하는 “즐거움”(JR 36)을 준다. 제이콥은 푸른 하늘, 밤꽃, 꽃가루로 가득찬 5월의 대기 속에서 자연과 교감을 경험할 뿐 아니라, 유년기부터 보유했던 자연적 자아의 연속성을 체험한다.

그러나 자연과의 친화 속에서 전체성을 추구하는 제이콥의 순수성은, 자연과 대립되는 인위인, 교육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오염된다. 케임브리지는 제이콥에게 당대의 문화와, 시대, 장소, 가부장전통의 가치관을 전수하는 권력의 주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 교수인 플라머의 예에서 보듯, 울프는 영국 아카데미즘의 온상이요, 서구문명의 보존자라 할 수 있는 케임

브리지를 통해서 당대 빅토리아교육체제 전반을 간접적으로 진단한다. 울프에게 케임브리지는 “모든 언어 - 중국, 러시아어, 페르시아어, 아랍어의 빛, 상징과 심상의 빛, 역사의 빛, 알려진 것과 알려질 것의 빛”(JR 42)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배움의 램프는 단순하고 순수하고 근사하지만은 않다.”(JR 39)는 화자의 언급에서 보듯 부정적 균열이 공존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다른 단락과 달리 무려 20여 페이지를 케임브리지에 할애하는 이유는 저자가 서구교육의 폐단과 한계를 ‘문명’의 역할담지자를 자처하는 케임브리지를 통해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케임브리지 위에는 -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예배당의 지붕 위에는 - 다른 점이 있다. . . . 킹스 칼리지 예배당의 갈라진 틈에 흘러든 하늘이 다른 하늘보다 더 밝고, 더 가늘고, 더 빛나다고 생각하는 게 헛된 일일까?”(JR 31&32) 이처럼 “더 밝고, 더 가늘고, 더 빛나는” 하늘 이미지는 대학이 구현하는 정신적 빛의 우월성과 역사적 계속성, 그리고 지배적 우위성이 산출한 이미지로 케임브리지가 권력과 지식의 생산주체임을 암시한다. 알튀세(Louis Althusser)에 의하면, 자본주의체제에서 중심 위치에 들어선 지배적 이데올로기 국가장치(ISA)는 교육 이데올로기 기구이다. 교육기구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대량교습으로 포장된 다양한 노하우로 유포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Althusser 152-56). 특히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와 같은 대학은 ‘지적 귀족계급’을 양산하여, 지배계급을 재생산하는 ‘자동적 연속성’의 기능을 수행할뿐 아니라, 지배이데올로기를 날조하고, 영속화시키는 데 일조한다(L. Montrose 27). 울프가 묘사한 예배당 안의 “질서지움”(JR 32)의 세계는 이성중심의 가부장적 사유체제를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고 한결같이 주형한 규율세계로서, 이 세계에서 개인의 개체성은 집단의 정체성 속에 흡수되어 사라진다. 이들은 사회의 이데올로기 재현의 허구적 미립자이면서, 한편으로는 규율이라 부를 수 있는 권력의 특별한 기술에 의해 조작된 실체이기도 하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영국의 인본주의적 이념과 교육제도가 제국주의 과정을 가속화 시켰으며, 이러한 제국주의 이념이 사회적 공리주의라는 이름으로 은닉되고 변형되어, 영국사회에 유포되었다고 말한다(Said 82).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가부장제의 산물임에 비추어볼 때, 고대희랍의 로고스 철학과 이성을 중심 사유로 한 18세기 귀족주의의 패러다임을 교육 토대로 한 케임브리지는 당대의

권력과 지배담론을 유포하는 근거지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인문학 연구에서 지적 조류의 중심을 반영하던 희랍·라틴텍스트에 몰두한 솨윗(Sopwith), 헉스터블(Huxtable), 코완(Cowan) 교수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을 유지·조장하는데 기여한 교육자(Althusser 156)의 면모를 재현하고 있다. 가령 대영박물관에 비견되는 거대한 지식의 소유자인 헉스터블 교수는, 실제로는 “조그만 은화에도 인색하게 구는”(JR 40) 사 람이며, 현학적인 달변으로 유명한 솨윗교수는 이들을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에 보내려고 한 편이라도 더 저축하고자 한다(JR 41). 이들의 상반된 모습은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당대 영국의 이익중심적 세계관을 반영할 뿐 아니라, 인본주의적 이념들이 아무런 갈등 없이, 제국주의와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시사한다. 제국주의가 영국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일반적으로 영국의 풍요로운 복지를 위해서, 특별하게는 어머니와 같은 보호자로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되었던(Said 107) 사실은, 제국적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확산 외에는 어떤 예외도 없는 당시 상황을 쉽게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저자가 보았을 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러한 메카니즘에 동원된 대학교수들은 “조직” 속에서 “이름 사이에 줄이나 치는 건축업자나 사정관, 감정인”(JR 42)에 불과할 뿐이다.

제이콥은 이런 집단적 식민화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개체성을 보존하기보다, 엘리트의식을 강화시키며 “과거로부터 받은 선물”을 독식하는 “전승자”로서 만족함을 보인다(JR 45). 그 만족감은 지적인 욕구충족에서 오는 것이지만, 케임브리지가 지배이데올로기의 실천기구임을 감안할 때, 제이콥이 받은 교육은 그 시대 지배계층이 의도적으로 주도한 인식소를 내재화시키는 과정일 따름이다. 당시의 지배체제는 물질적 착취의 검은 충동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지향의 실천이라는 대의명분하에 교육받은 남성의 애국심을 조장하게 된다. 특히 대학은 젊은 청년들에게 군사주의적 애국심의 열정을 불어넣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증대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텍스트 전반에 걸쳐 제이콥의 외양이나 인상이 전쟁과 연관된 군사주의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유도, 권력과 남성의 불가분의 관계를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

군사주의의 영향은 대학에서만이 아니라, 제이콥의 유년기에 어머니의 연인인 바풋(Barfoot)대령으로부터 시작된다. 바풋대령은 “쥬 샬은 죽히 넘은”(JR 28) 제대군인으로, “나라에 봉사하다 절름발이가 되었고, 왼쪽 손가락 두 개를

있는”(JR 25) 사람이다. 그는 수요일마다 제이콥의 집에 드나들면서, 죽은 아버지 시부룩(Seabrook)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불구이면서도 걸음걸이는 어딘지 모르게 “군인 같은 분위기”(JR 26)를 풍기는 바푃대령이 제이콥을 권력의 산실인 케임브리지로 보낸 이유는, 제이콥에게서 일찌감치 지도자의 자질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몇 년 뒤 그리스 여행지에서 만난 영국인 여행객 에반 윌리엄스(Evan Williams). 정치사를 전공한 그의 눈에 제이콥은 “정치에 나서면, 아주 낱할”(JR 146) 친구로 보인다. 교우 보너미(Bonamy)에게 앞을 응시하며 걷는 제이콥의 모습은 “영국해군제독”(JR 145&165)을 연상시키며, 매점주인은 제이콥을 “군인신사”(JR 76)로 착각한다. 군사주의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이와 같은 제이콥의 면모는 그가 기존세대를 비판하는 반항아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기존세대의 토대가 되는 남성성의 옹호자라는 양면적 속성의 소유자임을 보여준다. 제이콥의 양면성은 개체화와 사회화의 쌍생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청년들의 보편적 성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케임브리지 젊은이의 특징이기도 하다(Zwerdling 58). 제이콥의 양면성은, 지배체제를 공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체제에 순응하는 지식인 계층의 양면성을 직시한 자의식적인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다. 플라머 교수의 예에서 보듯, 제이콥이 케임브리지의 가치관을 문화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아무런 의혹도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세계에 쉽게 순응하는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그의 반항적 제스처어는 피상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화자는 회의적이며, 빈정대는 어조로, 케임브리지가 가져다주는 지위를 전용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아마 시계소리가 그에게 낯은 건물과 시간, 후계자인 그 자신, 내일과 친구들에 대한 생각을 가져다준 모양이다. 그는 확고한 자신감과 기쁨에 가득차,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는 듯했다.”(JR 45) 혹은, 지배문화에 편승한 지식인 계층의 전형적 모습으로 풍자한다: “미래의 삶과 피는 전적으로 여섯 젊은이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제이콥이 그 중 하나이므로, 페이지를 넘기는 그는 당당하고, 건방지게 보인다.”(JR 107)

이같은 맥락에서 제이콥은 독특한 개인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적 정체성이 집단의 정체성에 흡수되는 전형적 인물로 형상화된다: “제이콥은 몸을 움직였다. 그는 머뭇거리며 밤인사를 하고 교정으로 나갔다. 재킷의 단추를 채웠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에 방으로 돌아가는 이는 그뿐이었으므로 그의 발소리가 울렸고, 그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흔들렸다. 예배당과 홀과 도서관

에서 그의 발소리가 되돌아 울렸다. 오래된 돌이 권위 있는 목소리로 메아리치 듯이: “방으로 돌아가는 젊은이-젊은이-젊은이-”(JR 46).

제이콥이 사회화 과정에서 받아들인 지배이념 중, 가장 비인간적인 면은 여성에 대한 비하이다. 가령, 제이콥은 킹스칼리지 예배당의 교수 부인들을 보면서, 왜 학교측에서 여자들을 교회예배에 허용하는가 의아해 하는 한편, 그들을 개에 비유한다. 왜냐하면 “개가 예배를 완전히 망쳐 놓기 때문이다.”(JR 33) 제이콥에게 그들은 남편들의 신학, 수학, 라틴어 지식에 의해 그 자질이 보증될 뿐이며 죄처럼 추악하게 비칠 뿐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여성관은 악의 본질이 곧 여성의 본질이라는 당대의 가부장적 사고를 그가 물려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가 JR의 초안에서는 여자대학생 안젤라 에드워즈(Angela Edwards)에 대한 텍스트를 쓰고 있지만, 최종본에서 삭제한 이유는, 당대의 대학이 여성을 배척하는 남성의 전유물로서 배타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임을 보여주지 위함이다(E. L. Bishop 116-17). 제이콥과 관계를 맺은 여성 중 그가 가장 존중하는 여성은 “노인들에게 끝없이 차를 따르는”(JR 123) 듀란트집안의 천사 클라라(Clara)이다. 그러나 클라라를 자신의 미학적 갈망을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여성으로 생각하면서도 제이콥은 스스로없이 뒷골목의 창녀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빅토리아 성모랄의 신봉자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을 연모하는 가난한 그림모델인 페니엘머(Fany Elmer)의 ‘감상과 기분’, 클라라의 ‘깊은 감정’에도 무심한 자세를 취한다. 친구 보너미의 집청소를 맡아 하는 잡역부 팍워스(Papworth)부인의 “어머니 같은”(JR 102) 보살핌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무관심에서 연유한다. 이렇듯 제이콥의 여성관은, 여성을 비하시키는 빅토리아조의 반여성적 사고 방식에 다름 아니다. 울프는 텍스트 곳곳에 소외된 여성의 삶을 부각시켜, 제이콥이 케임브리지가 산출한 남성적 특권의 계승자임을 한층 강조한다. 이 시대의 여성은 가부장제를 지속시키는 역명의 협력자일 뿐, 자신의 개체적 삶은 존재하지 않는 남성의 타자에 불과하다. 에드워드조는 울프에게는 남근중심주의가 최고 정점에 이른 시기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에드워드조 리얼리즘에 대한 울프의 공격은 사실상, 남근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에드워드조 리얼리즘을 남성적 글쓰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작품의 도입부가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인 플랜더즈 부인의 편지쓰기로 시작된다는 사실에서 저자의 저의를 간파할 수 있다. 즉 『제이콥의 방』은 마음의 자유로운 유동, 유연한 구문, 연상의 대담

한 비약, 이미지의 활용이 미적통제감을 잃지 않고, 여성원리인 ‘안개효과’(Lee 81)를 창출하고 있는 점에서, 권위적·분석적·객관적인 남성적 사실주의 미학을 패로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제이콥의 삶과 주변 여성들의 운명을 대조시키는 이면에는 이처럼 남성세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다. 울프가 묘사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의 삶에는 소외된 자들의 고통이 암울하게 깔려 있으며, 이들은 압도적 힘을 행사하는 남성지배문화에 도전하여 주체적 삶을 쟁취하지 못하고 질곡 속에 살아가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저자는 아버지도 없이 궁핍한 홀어머니 손에 자랐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로 대학교육까지 마치고, 유럽여행도 하면서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는 활기찬 제이콥의 삶과 여성들의 무기력한 삶의 대조를 통하여 빅토리아조 나아가서는 인간사회의 허위성을 노출시킨다.

이와 같은 여성의 소외는 이분법적 사고가 주축을 이루는 빅토리아 사회의 단절, 나아가 서구의 이분법의 대립이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이콥의 남성위주의 편견이나 지성위주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는, 단절을 부추기는 서구 사회의 부정적 산물로서, 그가 생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분열된 자아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이콥의 케임브리지 교육은 자유가 아닌 지배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는 제국주의 담론 유포의 주체로서, 인간성의 합일이라는 인간중심주의적 교육보다는 인간성의 폭을 제한하는 지성중심주의교육으로 삶의 총체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통찰을 부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분석적이고 추상적인 이성 중심의 케임브리지 교육은 통합하고 조화하는 힘보다는 분리하고 단편화시키는 논리를 통해 인간 자체까지도 분절화, 단순화시킨다.

이처럼 케임브리지 텍스트에서 제이콥은, 당대의 지배이념을 계승하는 전형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내재화시키지만, 저자는 한편으로는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그의 기숙사방의 정경을 부각시켜, 그가 고유의 개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임을 시사한다. 저자의 의도는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잠재적 형성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따라서 결코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점(Fleischman 48)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달리 말하면, 제이콥이 20세기초의 전형적 지식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아의 지평을 확대해

갈 가능성이 있는 인물임을 암시한다. 화자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네빌스코트(Neville's Court) 꼭대기에 위치한 그의 방의 정경을 보기로 하자.

제이콥의 방에는 원탁과 낮은 의자 두 개가 있다. 벽로 선반 항아리에 꽃힌 몇 개의 노란 깃발; 어머니 사진 한 장; 조금 불거진 초승달 무늬가 새겨진 머릿글자들이 있는 협회에서 보낸 카드 여러장, 노트와 파이프 몇 개; 탁자 위의 붉은 테를 두른 서류 - 논문이 분명하다 - 「역사는 위대한 이들의 일대기로 이루어지는가?」 책이 많았다 ... 예를 들면, 웰링턴 공작의 일생; 스피노자; 디킨스의 작품들; 「선녀여왕」; 양귀비 꽃잎을 사이에 끼워둔 그리스어 사전; 엘리자베드 시대 작품 모두 ...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사진과 조수아경의 동판화가 있다. 모두 아주 영국적이다. 다른 이의 기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인 오스틴의 작품도 두었다. 칼라일은 훌륭하다. 르네상스 이탈리아 화가들에 대한 책 여러 권과 『말질병 대처법』 외에 일반적인 교과서들이 있었다.

Jacob's room had a round table and two low chairs. There were yellow flags in a jar on the mantle pieces; a photograph of his mother; cards from societies with little raised crescents, and initials; notes and pipes; on the table lay paper ruled with a red margin - an essay, no doubt - "Does History consist of the Biographies of Great Man?" There were books enough ... Lives of the Duke of Wellington, for example; Spinoza; the works of Dickens; the Fairery Queen; a Greek dictionary with the petals of poppies pressed to silk between the pages; all the Elizabethans. . . Then there were photographs from the Greeks, and a mezzotint from Sir Joshua - all very English. The Works of Jane Austen, too, in deference, perhaps, to some one else's standard. Carlyle was a prize. There were books upon the Italian painters of the Renaissance, a Manual of the Dieases of the Horse, and all the usual text-books.(JR 38-9).

위에서 보듯, 방을 장식하는 노란 깃발에서부터 『말질병 대처법』에 이르기 까지 그의 방은 자질구레한 물건들과 소도구로 가득찬 무질서의 공간이요, 다양성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질서와 다양성은, 화자가 “가치가 있는 사

람은, 기분이 이끄는 대로 엄청난 열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읽는 법이다”(JR 39)라고 잠언처럼 말한 대로 제이콥 개인의 미적 충동이 반영된 결과이다. 울프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방의 이미지는 그 방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성의 표출이며 사고방식이 투영된 거울로서, 소유자의 인격의 정수(Miller 83)를 나타낸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아우라라고 부른 것처럼, 방은 그 주인과 떼어놓을 수 없는 상호삼투관계에 있어서 주인의 개성의 본질을 전달한다. 이처럼 방이 개인의 의식과 정체성을 은유하는 매개체라는 관점에서, 제이콥의 방은 “인식론과 시학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Rosenbaum 329)이다. 특히 역사에 대한 관심과 생명력, 진취성, 탐색으로 특징 지워지는 엘리자베드 시대의 문학작품들과 완결된 문화를 표상하는 그리스에 대한 편향은 그에게 진리의 절대성에 대한 강박 관념으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자유정신의 일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가 삶의 본질, 즉 인간실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탐색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한다. 플래시만은 보헤미안과 신사라는 서로 상충되는 요소가 제이콥에게 공존한다고 보고 이 두 가지 특성이 제이콥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축임을 밝힌다(Fleishman 50). 실제로 주변사람들은, “무척이나 잘 생겼고, 상당히 어색해 하는”(JR 155) 그의 인상의 “두 극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망설이며”(JR 155) 절친한 친구 보나미는 그에게서 “도회적”(JR 164)이면서도 “야성적인”(JR 164) 상반된 속성을 동시에 본다.

그러나 제이콥 청년기의 삶의 주무대가 된 케임브리지의 기숙사 방은 런던의 램즈 콘듀잇(Lamb's Conduit)가에 위치한 마지막 하숙방과 더불어 주인은 부재하는 빈방의 정경만이 반복된다.: “빈방의 공기는 나른했다. 그저 커튼이 부풀뿐이다. 항아리의 꽃이 조금 움직인다. 앉은 사람이 없는데도 버들가지를 엮어만든 안락의자의 나뭇가지 하나가 삐걱인다.”(JR 39&176) 빈방의 이미지는 “수면까지 타버린 보트처럼 믿기 힘들 정도로 초라한”(JR 39) 주인 없는 슬리퍼의 이미지와 함께 죽음과 침묵, 공백의 효과를 고조시킨다. 빈방의 비어있음(emptiness)은, 결정론적인 우주에 조종 당하며 환영처럼 살아가는 제이콥의 존재를 은유하면서, 독자에게 그의 죽음에 대비하라는 암시를 던지는 것이다.

## III

케임브리지 시기가 제이콥에게 제국주의 지배체제에 봉사하는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을 교육을 통해 내재화 하는 시기였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활동하는 장소인 런던은 가정과 학교를 통해 형성된 사고와 이상을 시험해보는 구체적 현실인 점에서 제이콥이 입문을 겪는 상징적 여행의 출발점이 된다. 5장~10장에 걸쳐 전개되는 대도시 런던의 텍스트에서 제이콥은 자신의 지적 신념과 실제 현실의 괴리를 깨닫게 되며, 그 깨달음 속에서 타인의 삶을 이해하면서 자아의 지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 울프는 주인공의 의식이 각성되어가는 모티프를 중심으로, 런던으로 대변되는 문명의 본질, 즉 그것의 황폐화 현상과 그것이 개인에게 가하는 파장을 그린다. 런던 텍스트를 쓸 당시 울프는, 일기에 “삶이 왜 이렇게 비극적이지 모르겠다. 마치 심연위로 길게 뻗은 좁은 길 같기만 하다 ... 내가 끝까지 저 길을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Zwerdling 80)라고 적고 있는데, 이 작품의 주요 배경을 이루는 도시 런던은, 저자가 일기에 토로한 것과 유사한 비극적 세계관을 재현한다.

『제이콥의 방』의 배경인 런던도시도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이러한 문학전통의 맥을 잇는다. 1차대전 시작되기 전의 런던시가가 화자의 풍자적 시각을 통해 그려진다. 화자가 그리는 런던은 “회색의 도시, 오래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JR 67)이다. 이러한 런던시가를 삶의 긴 여로를 향해 “순례자들이 터벅터벅 걸어간다.”(JR 67) 공허하고 무의미한 생을 반복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워털루 다리를 건너는 군상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그들은 다리를 끊임없이 건넌다. . . 서리(Surrey)에서 스트랜드(Strand)로 가는 사람들의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JR 112) “어둠속에서 몸을 파는 소녀(JR 81)”와 “순찰구역에서 밤새도록 뒤끓는 남녀”(JR 79)들은 선악의 개념을 상실한 생중사의 인간군상들이다. “파업, 살인, 축구, 시체발견, 영국 전체가 동시에 지르는 고향”(JR 98)으로 가득찬 신문과, 나이든 맹인 여자, 녀마 걸친 노인의 이미지는 문명세계의 어두운 단면을 제시한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의 눈”(JR 81)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인간이 서로 적대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대방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소외와 불안 속에서 “우리에 갇힌 짐승”(JR 81)처럼 사는 삶이 로즈 쇼(Rose Shaw)는 “지겹고 혐오스럽다”(JR 87, 95&97)고 느낀다. 『제이콥의 방』의 런던은 위에서 보듯, 자본주의의 물신주의로 인한 소외와 물화현상의 소산인 인간관계의 단절을 보여준다. 독자는 “타는 듯한 총검 끝”(JR 97)처럼 어둠의 끝을 떠받치고 서 있는 런던의 램프이미지에서 문명사회의 폭력적 가치체계, 더 나아가 당시 제국주의 도시로서 절정에 달한 런던의 실상을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다.

『제이콥의 방』의 화자는 런던의 오페라하우스의 좌석 배열을 보며 당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계급조직과 분류법을 조롱한다: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연과 사회는 아주 간단한 분류체계를 만들어냈다. 1등석, 특등석, 계단식 관람석, 맨 위층 관람석”(JR 68-9). 계급은 계급과 계급 사이에서 서로를 구획하는 명확하고 단절된 경계선이 실재하고 착취, 피착취 또는 지배, 복종등 복잡한 사회관계가 내재되어 인간을 필연적인 대립관계로 서게 한다. 저자는 지배라는 것이 인간관계에 끼어들면서 인간의 자연성이 왜곡되었다고 보고, 그 원인을 계급조직과 계층의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영국이 현대 민주주의의 압력과 공동체의 중요성이 역설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계급조직이 타파되지 않은 계층화된 사회로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Zwerdling 117). 특히 귀족층은 산업화와 제국주의 발달의 와중에서 그 집단적 동일성과 정치적 권력을 상당히 상실하였지만 그 사회적 이미지는 계속 지배력을 유지하였다. 아놀드(M. Arnold)가 음주, 경기, 여우사냥, 도박 등으로 소일하는 귀족층의 낭비적 습성을 가리켜 “야만인”이라 칭했듯이 울프도 그들을 사회기생충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Altick 21).

제이콥이 어머니쪽 집안과 연맥이 있는 록스비어(Rocksbeer) 백작부인을 방문하여 오찬을 함께 할 때, “냄새 맡기에 좋게 생긴 특이한 코, 좁고 붉은 선반처럼 삐죽 나와 있는 아랫입술과 작은 눈, 모래처럼 거친 눈썹과 육중한 턱”(JR 10)을 지닌 노부인의 탐욕스런 외양이 강조되고, 닭뼈를 손으로 가르는 모습에서 혐오감을 느끼는 것도, 하는 일없이 소일하는 귀족계급에 대한 울프의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이들 귀족층의 소모적 일상은 “상당한 지위와 정장을 해야하는 이브닝파티와 그레이즈인(Gray's Inn) 뒤의 비참한 빈민굴”(JR 139)의 “견고하고 움직일 수 없는”(JR 139) 격차에 대하여 분노하는 제이콥의 태도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풍자된다.

이렇듯 런던 도시의 황폐한 분위기 속에서 제이콥은 직장(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을 다니고, 보헤미언 그룹에서부터 각종 협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씨름에 가입하여 다채로운 사회 경험을 쌓아간다. 그러나 제이콥에게 현실의 실상을 일깨우고, 자아성숙과 확장의 입문을 체험하게 한 것은, 창녀 플로린다(Florinda)와의 관계를 통해서이다. 플로린다는 여성이라는 성차별과 하층 출신이라는 계급차별의 이중적 억압 속에 처한 인물이다. 그녀는 싸구려 냄새가 나는 진한 황색의 반다락에 살면서, 성이 없는 사생아가 계급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매음행위로 삶을 이어간다. “비록 까막눈이어서, 연애편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무지”(JR 79)하지만, 감정이 있어서 어떤 남자들에게는 사랑을 느끼며, “전적으로 삶이 이끄는대로 살아가는”(JR 79) 플로린다를, 울프는 삶에 대한 정열과 생명력이 넘치는 인물로 그린다. 제이콥이 가이포크스 기념일(Guy Fawkes Day)의 모닥불 축제에서 만난 그녀와의 대면 속에서 “이것이 삶이다”(JR 78)라고 느끼는 것은, 플로린다가 그에게 결여되어 있는 삶의 역동적 측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플로린다는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버스안에서는 얼굴에 분을 바르고, 독약을 먹이려 한다면서 웨이트리스를 비난”(JR 78) 하는 등,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제이콥은 그녀의 “정착하지 않은 생활에 부러움을 느끼는”(JR 78) 자신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 부러움은 곧 이제까지의 남성주의의 태도를 버리고,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동료”(JR 78)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인습적 사고에서의 해방은, 그가 사실의 차원에 생의 중요성을 두는, 지성위주의 삶의 한계를 포착하고, 비체계적이지만 풍요로운 순간들을 체험하는 여성의 삶도 수용하는 양성 정신(androgynous mind)으로 진일보하였음을 뜻한다. 울프 미학의 중심개념인 양성 정신이란, “타인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이고 분열되지 않은”(A Room of One's Own 94) 통합적 자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울프가 추구하는 완전한 인격은 삶의 대립적 양상인 여성의 직관의 세계와 남성의 사실의 세계가 하나로 융화된 양성의 상태(androgeneity)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개체적 삶과 사회적 삶이 조화롭게 결합된 중용을 이루는 것으로 이때 인간은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 된다. 그가 계층사회의 최하단에 있는 멸시받고, 소외된 창녀라는 존재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직시하는 것도, 타인의 삶에 공감함으로써 자아를 밖으로 향하게 하여 세계와 자신의 관계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위대한 사람들은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불을 응시하며, 자그마한 거울을 들고 입술에 루즈를 칠하고, 얼굴에 분을 바르는 이 작은 창녀들이(제이콥은 그렇게 생각했다) 범접할 수 없는 신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JR 94). 이처럼 난생 처음 빈곤과 소외, 비참함으로 얼룩진 외부 현실을 대하면서 제이콥은 자신이 삶의 좌표로 여겨왔던 “은둔과 고전문학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JR 82) 즉, 그것이 삶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자각에 도달한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부패한 서구사회를 형성하고 제한해온 로고스와 이성에 대한 회의이며, 그 회의는 제국주의지배의 토대가 된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된다: “그는 남성우위의 사회, 은둔처들, 그리고 고전작품들에 대해서 격렬한 혐오감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것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자에게 격노하여 대결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JR 82).

그러나 그의 비판적 사고는 그야말로 권한 없는 비판의 단계에 머물고 만다. 그것은 실천에 대한 책임 없이, 실제적 경험만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식도 없이 사회와 기존권력에 대한 비판만을 일삼는 단계에 머물 뿐,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소극적 회피주의에 다름 아니다. 가령, 플라톤의 수사학과 사랑에 관한 대화편인 『파이드로스』(Phaedrus)를 읽을 때, 그의 마음은 그 차가운 에너지(JR 110), 지성에 몰입해 들어간다. 그 시간에 그의 창밖에서는 마구간 개조아파트에 사는 여자가 어두운 밤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들여보내 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제이콥은 무관심하게 플라톤의 논증에만 몰두한다. 이것은 그의 자아완성의 욕구가 휴머니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 뿐인 허약한 소시민적 개인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아직도 그가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지성은 정태적인 인식 기능으로서 모든 것을 고착되고 불변적인 시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이해도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된다. 애초에 플로린다에 대한 사랑도,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하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는 데서 싹텄으며, 그녀가 직업상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로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것임을 볼 때, 그의 사랑의 정체도 남성적 윤리에 근거한 표피적 사랑에 불과했다. 저자가 플로린다와의 육체적 만남을 설정한 이유도 그녀가 조화와 공유의 성질을 바탕으로 한 삶의 원리인 ‘열정’을 구현하는 인물로서, 제이콥의 자기실현에 도움을 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제이콥의 자각은 피상적인 것에 그치며, 그는 여전히 이성중심의

사유 속에서 합목적적 행동을 계속하는 내적 식민화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그의 인간관계도 대화의 공명이 주가 되는 전면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남성/여성, 지배/피지배, 자연/문명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한 부분적인 관계에 한정되고 만다.

#### IV

무엇보다도 제이콥의 삶의 형식을 구성하는 것은, 그리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다. 그리스는 그의 총체성을 향한 도정의 중심에 놓인다. 대학시절과 런던에서의 생활, 아크로폴리스(Acropolis) 정상의 에피퍼니 체험에 이르기까지 그의 성장을 주도해온 저변의 힘은, 그리스정신(Greek Spirit)이라 말할 수 있다. 가령, 제이콥에게 케임브리지의 빛은 “단지 언어뿐만이 아닌, 배교자 율리아누스(Julian the Apostate)”(*JR* 46)에 관한 토론으로 촉발되는 빛이다. 율리아누스는 실존하지 않는 상상속의 인물로, 기독교 문명속에서 교육 받으면서도 헬레니즘 문화에 경도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터에서 요절한 점에서 제이콥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친구 듀란트와의 화제는 그리스에 관한 것으로 채워진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문학을 섭렵한 후에도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그리스의 정취”(*JR* 75)뿐이다. 그리스는 그가 “고통스럽고 낙심에 차 있을 때”나, “공허하고 무익한 런던의 삶”의 와중에 있을 때 마치 “특효약이나 깨끗한 칼날처럼 늘 기적 같은 모습”(*JR* 76)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제이콥은 플로린다의 “야성적이고, 연약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그리스 여인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며(*JR* 78), 그리스에서 만난 산드라 엔트워즈 윌리엄스(Sandra Wentworth Williams)의 미모도 그에게는 “너무도 그리스적”으로 비친다. 그런가 하면 플로린다에게 제이콥은 대영박물관의 조상처럼 보이며(*JR* 80), 산드라에게는 그의 두상이 그리스 조각가 프락시텔레스(Praxiteles)가 만든 헤르메스(Hermes)상처럼 느껴진다(*JR* 145).

이렇듯 정신적·육체적으로 그리스에 밀착되어 있는 제이콥이 무질서와 혼돈의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런던에서, 고전세계 즉 질서를 상징하는 그리스로 여행하는 것은 함축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영원한 실재를 잃어버린 고전적 질서에서 찾으려고 한 울프의 모더니

즘 세계관을 반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엘리엇나 조이스처럼 울프도 고전적 질서체계의 회복을 통해서 현대문명의 부정적 현상을 타개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에세이 「그리스를 모른다는 것」 (“On Not Knowing Greek”)(1925)에서, 울프는 그리스를 “약탈되지 않은 땅, 오염되지 않은 바다”가 있는 유토피아의 근원으로 보고, 그곳을 “분투하지만 좌절하지 않는 성숙한 인간의 비전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12장에서 그리스에 대한 비전을 전개하며, 그 과정을 통해 이 작품의 실존적·정치적인 두 주제를 하나로 통합한다. 말하자면 그리스에서 과거의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간성의 회복을 시도하는 행위가 현대문명의 질곡에 처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1차대전 이후 발발하기 직전의 서구문명의 쇠락에 대한 대안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이콥이 “내가 사는 시대를 증오히라. 더 나은 시대를 만들어라”(JR 107)를 좌우명처럼 외치며 그리스로 가는 것도, 그리스가 지배/종속을 기조로 하는 잔인한 인류역사에 대한 유일한 해방구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그에게 실망과 환멸만을 안겨준다. 현대의 그리스는 “이탈리아 신사가 조끼 단추를 열어 젖힌 채 코를 골며 자는 곳”(JR 136)이며 “아리스토텔레스란 이름의 더러운 웨이터가 탐욕스럽게 팁을 요구하는 곳”(JR 138)에 불과했다. 마라톤평야가 내려다보이는 아크로폴리스에서는 “그리스는 끝났다. 파르테논은 황폐하다”(JR 150)는 느낌을 받는다. 저자는 그의 환멸의 정체가 서구문화 풍토가 조성한 환상에서 비롯될 것임을 지적한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가정교사들이다. . . 우선 크세노폰을 읽어라. 그리고 나서 유리피테스를 읽고. . . 요점은 우리가 환상속에서 자랐다는 것이다.”(JR 138) 억압 없는 세계는 관념론과 유물론이 일치하는 데서 찾아진다고 보았을 때, 제이콥이 품은 환상은 본질적으로 비현실적인 미학의 영역에 속한다. 그것은 차가운 현실을 빠져나가 다른 곳에 더 따뜻한 세계가 있으리라는 환상으로서, 현실을 축소시키려는 욕망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그의 욕망은 현실을 움직이는 여러 관계망들과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성을 지향하는 정신주의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환상에 불과할지라도, 시대를 걸쳐 전승되어온 문화정신에 대한 꿈은 그 존재 때문에 삶을 견딜만한 것으로 만드는 동력이 된다. 따라서 화자는 그리스 정신의 왜곡됨을 우려하긴 하지만, 그 정신 자체까지 거부하지는 않는다. 제이콥이 현대 그

리스에 대한 실망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허가 된 파르테논 신전에서 에 피페니를 체험하는 것도, 그리스 정신에 의한 여전한 구원의 열망 때문이다.

파르테논이 구현하는 불멸의 미와 정신적 에너지는, 그것이 인류역사의 원 동력인 인간의 사유와 창조력을 표상하는 점에서 대영박물관이 구현하는 ‘거대 한 정신’과도 통한다(JR 108).

울프의 그리스정신은 공동체적 삶을 전경화 하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스를 모른다는 것」에서 그녀는 공동체적 삶이 인간의 존 엄을 보장하는 삶을 천명한다. 그리스인의 작은 공동체는, 부분이 전체와 연 결되는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노동은 자신을 위해 존재할 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JR 40). 그곳은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증시되고, 이성/비이성의 구분이 없는 통일의 세계이기 도 하다. 이렇듯 인간성의 회복을 전제할 수 있는 공동체의 원형이 울프에게는 그리스에 있었다. 그곳은 주체와 객체, 지배와 피지배, 인간과 자연의 구분이 없는, 억압 없는 질서의 세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리스 정신은 그것이 없으면 삶이 ‘산산이 흩어지는 편지’(JR 93)와 같은 것, 혹은 ‘정신적 형체’를 창조하는 대화(JR 43) 같은 것이다.

인간을 화합으로 이끌어 가는 동력이 그리스 정신이라면, 인간을 불화로 몰 고가는 것은 ‘잡을 수 없는 힘’이다. 울프는 정치가와 사업가가 문명을 이끌어 가는 추진력이라 주장하는 ‘잡을 수 없는 힘’과 그리스정신을 대비시키면서 단 순히 심미적 단계가 아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문명에 대한 신랄 한 비판을 시도한다. 작품 전반에 걸쳐 문명은 시종일관 부정적 어휘로 조롱, 풍자되는데, 이 문명관의 특징은 인간성의 상실에 대한 슬픈 인식이다. 가령, 현대인은 “문명의 승리”(JR 95) 혹은 “문명의 절정”(JR 164)으로 냉소의 대상 이 되며, “뼈적거리는 상태”(JR 138)에 있는 현대 그리스 문명은 “유죄선고를 받은”(JR 138) 것으로 묘사된다. 제이콥이 매년 그리스에 올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그것이 문명속에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JR 146) 이기 때문이다. 문명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그것이 “은행과 연구소와 사업체의 끊임없는 거래”와 제국주의 전쟁만이 “세상을 전진시키는 노젓 기”(JR 156)라고 보는 경제적 합리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합리주의는 홉슨(Hobson)에 의하면 당시 영국의 제국주의를 가능하게 한 토대

로서, 지배계급을 부유하게 하고 하층계급을 매수하여 온순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원리이기도 했다(레닌 136&138). 이 경제적 합리주의가 현대산업사회에 침투하면서 자율적인 개인의 이성은 기술적인 합리성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 기술적인 합리성은 개인들을 사회에 비판적으로 대항하도록 하기보다는 사회의 지배에 순응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클럽이나 내각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것으로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잡을 수 없는 힘”은 달리 말하면, 이윤극대화의 합리성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경제인간의 물질적 충동과 다를 바 없다. 울프가 우려하는 것은, 소설가의 일은 “하찮은 난롯가 기술이며, 공허와 미사여구”(155)에 불과하다고 비웃는, 그들의 미학적 기능에 대한 비하적 태도이다. 저자는 문명의 병리현상이 이러한 감성의 기능에 대한 이성의 억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건강한 문명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성의 폭력을 제거하여 억눌린 감성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감성을 이성화 하고, 이성을 감성화 하여 두 충동을 우호적으로 화해시키는 데서 문명은 전진한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가 제이콥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도, 문명을 구성하는 이원적 충동 중에서, 미학적 차원만을 진리로 보려는 그의 단견적 사고이다. 그가 아크로폴리스에 올라 문명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리스를 그 해답으로 보는 행위를 서구의 문화적 정체성의 추구하고 개체성의 실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화자는 영원의 영역인 그리스가 문명이라는 현실적 영역과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제이콥의 한계는 이들이 서로 융합불가능한 전혀 이질적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그에게 문명이 인간성을 저하시키는 ‘악’의 영역이라면, 그리스정신은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선’의 영역으로 양극화된다. 즉 그리스와 문명세계는 그에게 영원성의 유무라는 차이로 해서, 진실의 삶과 허위의 삶으로 이분화 된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문명이 고도의 물질적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결핍이 풍요의 억제로 대체되었을 때야 가능하다(마르쿠제 189). 따라서 그가 아크로폴리스에서 체험한 초월성은 고독한 사유의 결과로 얻어진 고립된 초월성, 유대감이 결여된 초월성으로 현실적 인식(예를 들면 그의 유럽순회 여행은 어머니 사촌인 버크백양(Old Miss Birkbeck)이 그 앞으로 남긴 유산 100파운드 덕택에 가능했다)으로서의 구체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그의 유토피아적 인식의 문제점은, 윌리엄스가 말하는 현실의 고통에 과감히 맞서는 투철한 디스토피아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열려진 유토피아를 향한

것이 아닌, 단혀진 관념적 이상주의라는데 있다. 그의 단견적 세계관은 그가 머리에 지붕을 이고 서 있는 여인상인 에레크테이온(Erechtheum)을 감상하는 태도에도 이어진다. 그는 여인상이 산드라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감탄할 뿐, 그것이 대영제국의 엘진(Elgin)경에 의해 약탈되어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역사적 진실을 꿰뚫어보지는 못한다. 또 “검은 물”에 굴복한 테일리메일지에는 분노하면서, 영국이 아일랜드에 자치권(Home Rule)을 부여하는 점에 대해 못마땅해하는(JR 139) 모순된 모습은, 그의 그리스정신이 문명과 성찰적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던진다.

그러므로, 제이콥의 순례는 아크로폴리스에 올랐을 때 정점을 이루지만, 그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회의적 시선으로 그 초월이 비연속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아크로폴리스에 닿는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 일을 하노라고, 아니면 제이콥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영원히 간직할 단단하고 견고한 무엇인가를 찾았노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JR 161) 그러나 작품이 종장에 접근할수록 삶은 환한 것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불길한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거친에너지로, 어둠을 굴리며 아테네 거리를 휩쓰는 바람”(JR 161-62)과 “칼처럼 그리스를 덮치는”(JR 175) 어둠의 이미지는, 유럽 전역에 드리운 1차대전의 전운을 예고한다. 그리이스 피레우스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발사하는 대포소리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파시즘 및 비합리적 권위 형태의 확산을 통한 이성중심주의의 승리를 웅변한다. 제이콥은 런던으로 돌아오자마자 참전하여, 궁극적으로 그의 빈방에 “남은 구두 한 켤레”로 남는다(JR 176). 그의 죽음은, 그가 저항하면서, 동시에 편입되고자 했던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기에, 치유할 수 없는 개인의 상처이면서 역사적 상처로 남는다. 전쟁은 그의 내부에 있는 진실에 대한 개인적 탐색이 보다 넓은 역사적 지평으로 확대되어 미처 성숙하기도 전에, 폭력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여 그의 지속적 성장, 나아가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발돋움을 멈추게 했기 때문이다.

## V

이제까지 우리는 제이콥의 삶의 면모를 통해 당대 이데올로기에 대

한 울프의 시각을 검토해 보았다. 울프가 취한 수사적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중심주의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가져온 부정적 징후들을 폭로하여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한 저자의 의도는 주인공의 자아발전적 시도가 제도화된 폭력에 의해 무참히 중단되는 미완의 플롯을 통해 극대화 되고 있다. 즉 인간의식의 증식을 방해하는 것은 대학으로 대변되는 이데올로기 국가장치이며, “폭력과 반동을 지향하는”(Althusser 124) 제국주의의 기획이란 것을 역설함으로써 당대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이콥이 시도하는 자아의 탐색은, 그를 풍자의 대상인 풍자적 존재에서 실존적 진실이 있는 인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의 탐색은 병들고 부정한 세계와 아픔을 같이 나누는 대승적 자아완성도 아니며, 그렇다고 투명한 소승적 자아완성도 아니다. 사회가 개개인의 안정된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다고 볼 때, 정체성에 위기를 느끼는 개인은 사회속에 편입되려는 욕구를 통해 지배이데올로기의 메카니즘에 자신을 맡기게 된다. 정체성의 보존은 인간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순응성은 이데올로기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개인의 생존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의 한계는 그 이데올로기의 위선과 모순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그 속에 갇혀 있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지배계층의 담론에 봉사하는 당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한 상류사회 지식인 청년의 초상을 그리면서, 이데올로기의 허위를 고발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보았듯이 이 소설을 기존의 연구대로 형식만을 탐구하는 소설이라거나, 스타일만을 위한 작품(Daiches 61)이란 치우친 지적은 맞지 않는 말이다. 오히려 이 작품은 권력과의 공모관계를 통해 기득권을 계속 유지시켜가는 영국의 지배문화 속에서 점차 고유성을 상실하고 침식되어가는 한 상류사회지식인 청년의 비극적 초상을 보여주어 지배이데올로기의 작용태를 드러내는, 사회성이 짙은 작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이성중심주의, 지배 이데올로기, 제국주의, 군사주의, 그리

48 영미연구 제11집

스정신

인 용 문 헌

- Althusser, Loui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Tr. Ben Brewster. Brewste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 Altick, Richard. *Victorian People and Ideas*. New York: Norton, 1973.
- Bennet, Joan. *Virginia Woolf : Her Art as a Novelist*. Cambridge: Cambridge UP, 1964
- Daiches, David. *The Novel and the Modern World*. London: U of Chicago P, 1960.
- Fleishman, Avrom. *Virginia Woolf: A Critical Reading*. London: Johns Hopkins UP, 1975.
- Harper, Howard. *Between Language and Silence*.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82.
- Johnson, Manly. *Virginia Woolf*. New York: Frederick Ungar, 1973.
- Lee, Hermione. *The Novels of Virginia Woolf*. London: Methuen, 1977.
- Miller, C. Ruth. *Virginia Woolf: The Frames of Art and Life*. London: Macmillian, 1988.
- Montrose, Louis A., "Professing the Renaissanc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Culture" *The New Historicism*. Ed. H. Aram Veesser New York: Roatledge, 1989. 15-31..
- Moody, A.D. *Virginia Woolf*.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3.
- Paul, Janis. M. *The Victorian Heritage of Virginia Woolf: the External World in her Novels*. Norman: Pilgrim Books, 1987.
- Rosenbaum, Ellen Bayuk, *The Invisible Presence* Bar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85.
- Said, Edward. W.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Random House, 1993.
-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New York: Harcourt, 1929.

\_\_\_\_\_. *Jacob's Room*. New York: Harcourt Brace, 1950.

Zwerdling, Alex. *Virginia Woolf and the Real World*.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6.

Abstract

*Jacob's Room* : The Portrait of a high class  
intellectual as a young man

Chae-nam Kim

Throughout her career, Virginia was recognized as a modern novelist of the private sphere or as a precursor of feminism. The existing objection that her work lacks social vision and concern often accompanied charges of false lyricism or snobbish aestheticism. But these biased misreadings come in part from an emphasis on her relationship with the intellectual aristocracy of the Bloomsbury and her own famous attacks on Bennett's Victorian Materialism. Yet her vigorous social activities, as well as the radicalism of Bloomsbury group influenced her social vision to form the world of her fiction as the textur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life.

In *Jacob's Room*, Woolf shows the influence of dominant ideology in constructing human subjectivity, revealing the process of Jacob's characterization. The whole Victorian educational system, represented in Cambridge University, embodies the Western logocentrism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military and commercial Empire.

Although Jacob tries to reconcile in him the discrepancy between his intellectual beliefs and the real life, he comes to be imbued with the patriarchal discourse, and to be left eventually as a victim of the First World War. His preoccupation with the spirit of the ancient Greece and

pursuit of unity describing him as constructed by dominant ideology and thus as a figure in an institutional sacrifice, Woolf completes her criticism against the founding culture of imperial Britain.

**key words : Logocentrism, dominant idology, imperialism, Militerism, Greek Spirit**